

SK, 화학기업 녹색구매 바람 선도

납품·공급기업과 친환경 구매정책 다짐 ... 중소기업 청정기술 이전도

SK(대표 신현철)가 환경친화적인 기업 구매정책인 <녹색구매 방침>을 선포하고 한농화성 등 10개 협력기업과 청정생산기술 이전 협약식을 가졌다.

SK는 10월21일 “자사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 1월1일부터 녹색구매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며, SK 전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원·부재료, 공사용역 서비스 및 기자재 공급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 환경성과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기업의 환경성과 평가를 사전에 실시함으로써 조달 및 제품의 생산·수송·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현철 SK 사장과 참여기업 대표간 협약 체결

SK 신현철 사장은 “기업이 환경친화적 경영을 함에 있어 공급자와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최근 글로벌 스탠다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SK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환경요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색구매 정책은 대기업을 통한 중소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 및 BP, Shell 등 해외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SK는 한농화성 등 10개 중소 협력기업과 통합 환경경영체계(ISO14000) 구축 및 청정생산기술 이전을 위한 2차 협약식도 가졌다.

청정생산기술 확산 사업은 재정적·기술적 자원부족으로 환경경영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국내 대기업이 축적한 환경친화적 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이전하여 국내 산업구조를 더욱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화학저널 2004/10/22>